

“실내마스크 벗으면 확진·사망자 증가”

정기적 코로나 대응단장

“코로나 백신 접종률 높여야”

마스크 완전 해제 제기 반대

자문위원장 신중한 접근 주문

일부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내년 1월 중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해 방역당국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기적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대전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5일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것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그는 한 지역만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경우, 그 지역의 환자를 다른 지역이 수용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방역 정책이 지역 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시점에서 당장 실내마스크를 해제해야 할 만한 특별한 변화가 없어 보인다”며 “확진자 숫자가 뚜렷하게

늘지는 않고 있지만, 숨어있는 확진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독감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지금이 실내마스크 해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학교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어마어마한 독감 유행이 올 것인데 코로나19도 당연히 변질 것”이라며 “아직 학기 중인데 학교에 못 나오는 학생이 나오면서 학업 성취도에 문제가 생길 것이며, 학교에서 걸려 집에 가서 독감이 번지는 일도 당연히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자문위에서 2차례 깊이 있게 논의했으나 논란이 계속돼 당분간 추세를 보겠다는 정도로 정리했다”며 “질병관리청이 오는 15일과 26일 실내마스크를 포함한 방역 정책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여는데,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해 이야기(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내마스크 해제를 위한 조건으로 방역당국이 목표하려는 동절기 추가 백신의 접종률 목표(60세 이상 50%, 취약시설 거주자와 종사자의 60%) 달성을 제시했다. 또 중증화율 하락과 사망자 수 감소, 특효약 치료제 처방률 상승, 날씨가 추워지면서 조성된 3밀(3층·밀집·밀집·밀폐) 환경의 해소 등을 들었다. 최근의 실내 마스크 의무 해

제 논란은 대전시와 충청남도도 자체적으로 해제 하겠다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대전시는 최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공문을 보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12월 15일까지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하며 이 이유로 ▲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 아이들의 정서·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여당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5일 “대한민국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즉시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이날 SNS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했다.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역시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만 적용하고 전방위적 실내 착용 의무는 해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일상생활권 이어서 아침에 서울에 있다가 저녁에 목포에 있는 나라다”라며 “방역이 해제돼서 위험한 지역이 생기면 그 지역 환자 발생이 늘고 다른 지역으로 파급이 될텐데 이에 대해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스무살 된 로또...1등 8천명 16조원 ‘대박’

1등 평균 당첨금 20억원

최대 407억원·최소 4억원

‘일확천금’의 대박사 로또(은라인복권)가 발행 20주년을 맞았다.

2002년 첫 발행 후 20년간 8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로또 1등에 당첨돼 총 16조원을 받아 ‘대박’의 꿈을 이뤘다.

로또 판매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7월까지만 3조원대 판매량을 기록해 연간으로 6조원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

5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 12월 7일 1회차 추첨부터 올해 11월 26일 1043회차 추첨까지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은 총 7803명이다.

이들이 받은 당첨금은 총 15조9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당첨금은 약 20억3800만원이다.

회차별 평균 당첨자 수는 7.5명이다. 1등이 1명만 나와 상당한 규모의 당첨금을 가져간 회차도 있지만, 1등이 50명까지 쏟아져 1인당 당첨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회차도 있다.

한 사람당 당첨금이 가장 컸던 회차는 2003년 4월 12일 추첨된 19회차다. 1등은 1명 나왔고, 당첨자는 407억2300만원의 당첨금을 받았다. 당첨금이 가장 적었던 회차는 2013년 5월 18일 추첨된 546회차다. 1등 당첨자가 30명 나오면서 1인당 당첨금이 4억60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5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30%로 올라간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붙는다. /연합뉴스

전남도, 상하이서 전남 전략사업 집중 홍보

CGV 영화관에 ‘전남도관’ 운영

전남도 중공사무소가 상하이 자딩구의 난샹 인샹청 CGV영화관에서 상영관 중 1곳을 ‘전남도관’으로 명명, 지난 2일 오픈식을 개최하고 2023년 3월까지 전략사업 집중 홍보에 들어갔다.

상하이시정부 외사판공실 부처장 등 관계자와 호남항우회가 함께 참석한 오픈식은 한국 영화(한산: 용의 출현) 감상과 전남 국악 공연, CGV와 협력 협약(MOU) 체결 행사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올해 상하이시와의 우호 교류 26년째를 맞아 인구 2400만 명이 거주하는 중국의 경제수도 상하이 거주민에게 전남도를 적극 알리고 우호를 다지

기 위해 영화관 활용 홍보를 추진하게 됐다.

영화관 입구 전면 전광판과 전시대, 상영관 진입로를 이용해 전남도의 문화와 주요 관광지 사진 등을 전시하고, ‘전남도관’의 모든 좌석에 전남도 이미지를 디자인해 지속적인 노출을 하게 된다.

난샹 인샹청의 CGV영화관은 젊은 쇼핑객이 이용객이 월 5만여 명에 달하는 등 많은 영화 관람객이 방문하는 곳으로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기적으로도 성탄절, 설 명절과 함께 영화 ‘아바타 2’가 개봉을 앞두고 있어 2022년~2023년 전남도 방문의 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국제수목비엔날레, 국제농업박람회 등 일정을 주력 홍보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심뇌혈관질환 예방 위해 채소·콩·생선 충분히 드세요”

예방·관리 수칙 11년 만에 개정

질병관리청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2011년 이후 11년 만에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질병청은 10개 전문학회로 구성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 개정추진단’과 공동으로 수칙 개정을 논의했으며 6일부터 개정된 수칙을 적용한다.

이번에 개정된 수칙은 최근 심뇌혈관질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생활 습관 개선, 조기진단, 지속적인 치료, 응급증상 즉시·대처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전 수칙에서 ‘담배는 반드시 끊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로, ‘술은 하루에 한두잔 이하로 줄입니다’는 ‘술은 가끔씩 마시지 않습니다’로 개정됐다.

또 ‘한두잔 이하’와 같은 음주 허용 기준을 삭제하고 금주를 권고한다.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은 충분히 섭취합니다’ ‘적당량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골고루 짜지 않게 먹고 콩, 곡물, 채소, 콩,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로 구체화했다. /최희종 기자 cae@kwangju.co.kr



마지막 남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조세연 “집값 100% 뛴 때 무주택자 출산 0.15~0.45명 감소”

주택 가격 상승이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지방 이적 공공기관 종사자 3004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3~2019년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응답자당 출생아 수가 0.1~0.29명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기간 평균 출산율과 실제 출생아 수, 주택 소유 여부 등을 변수로 놓고 주택가격 상승률

을 가정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다.

특히 무주택자의 경우 같은 기간 출생아 수 감소 폭이 0.15~0.45명으로 더욱 컸다.

조세연은 “주택 가격의 상승이 출산에 상당한 수준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는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인 현 상황에서서는 상당히 큰 효과”라고 분석했다.

주택 가격이 혼인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역시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같은

기간 결혼할 확률이 최대 5.7%까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연은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이 가구들이 경험하는 주거 비용을 낮춰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결과”라며 “다만 주택가격 하락이 실제 출산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 이적에 따른 기타 부정적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63 - 9번지	264.8㎡
963 - 10번지	254.2㎡
963 - 11번지	225.8㎡
963 - 12번지	195.0㎡
- 합 계 -	
939.8㎡ 구 [284.3평]	

매매가 71억원

일반상업용지 용적율 1,100%
사옥 및 메디컬센터 신축 부지 적합

(주) GK파트너스 컨설팅 010-3625-1362

“구매” 법인까지 함께 인수.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391-3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단1길 12-8)

대 지 공장용지 12114.6 (3,665 평)

건 물 1) 일반철골구조 판별지붕 단층공장 1,326 (400 평)
2) 일반철골구조 판별지붕 2층 사무실 234.6/234.6 (70/70평)

소유자 (주) 크로스지 - 2011년 설립, 제조업

재무액 현황
금융권 채무 33억8천만원 기타채무(1곳) 4억5천만원
시보조금 7억 (공장등록 5년후 소멸)

* 인수총액 39억8천만원
실인수금액 6억 (기타채무 4억5천 상환포함)

010-3812-1394, 070-7747-1399

토지 판매

광주광역시 남구 입암동 692(호천 1지구) 대지 683.4㎡ (207평)

- 근린생활시설용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2면 도로접(중로1류, 소로2류)
- 5층 건물 신축 가능(대형식당, 스크린 골프장, 커피숍 등 다양한 상가와 1주택 건축 가능)

매매가 : 18억 4천만원

010 - 3605 - 8564

해산 및 채권공고(1차)

본 회사는 2022년 11월 1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2년 12월 1일자로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사오니, 본 회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이나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게제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6일
지오에이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철단과기로 333 (대촌동, 광주테크노파크)
청산인 박인철

70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내선 ·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총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9171
	· 양 산 571-7658	· 오 차 266-7601
	· 용 통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영 222-9054
	· 중 정 222-8171	
남 구	· 남 북 673-6836	· 백 운 651-1833
	· 동 성 673-6836	· 중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온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6-0451
	· 광 산 944-044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光州日報

· 96년 창간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여행구독
(062)220-0550